

왕릉순례 최상의 범문 '죽음' 과 '역사' 의 만남

65 에필로그 동어반복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거부하면서도, '최상의 범문은 죽음이다'란 말을 참 많이 한다. 불가에서는 죽음을 일컬어 '열반' 혹은 '적멸'이라 한다. 죽음은 숙연한 축제이다. 죽음은 화해와 화합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경고이자 교훈이다.

열반은 생사를 넘어선 각(覺)의 세계로서, 불교의 궁극적인 실천목표이다. 인간은 망집 때문에 괴로워하고 업을 짓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 만일 고(苦)와 무상(無常)과 비아(非我)의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서 바른 지혜를 완성한다면, 생사윤회의 근본인 망집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수행의 결과로 진리를 터득하고 망집을 단절한다면 인간은 일체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경지이다. 열반은 마치 바람이 활활 타오르는 불을 끄는 것과 같이,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지혜의 바람으로 불어 꺼서 모든 고뇌가

사라진 상태다. 열반은 탐욕과 괴로움과 근심을 추월한 경지이다. 때문에 인간의 유한한 경험 안에서는 그 어떠한 말로써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 다만 체득한 자만이 이를 감지할 수 있다.

왕은 죽지 않는다. 아니 죽지 못한다. 육신은 소멸했으나 행적은 불멸이다. 잊혀지길 원해도 잊혀질 수 없는 시퍼런 역사로 살아 있다. 파를 동반한 야심과 패기로 권좌에 올랐든, 열김에 떠밀려서 왕이 되었든 불멸의 이름을 달고 놓다란 봉분 이 불 아래 누워 있다. 그들은 과연 열반에 들었을까.

왕릉 순례는 '죽음과 역사'라는 두 가지 화두와의 만남이다. 사색과 성찰, 휴식과 운동이란 부가치도 뒤따른다. 조선 왕릉은 왕조 500년 역사의 타임캡슐이다. 대부분 경복궁을 중심으로 100리 안에 있다. 즐겨온 소풍놀이이다. 왕릉은 우리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남긴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나 그 선물은 답글한 케이크가 아니다. 그렇다고 쓰디쓴 썩물도 아니다. 낙화분분한 봄날에는 영화(榮華)의 가마에 동승하고 비바람, 눈보라 치는 계절에는 권력무상, 인생무상의 하중에 어깨가 무겁다.

역사는 살아있는 교훈이자 화해의 축제이다. 500년 조선의 역사를 폐기된 역사책이 아닌 생생한 역사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왕릉이다. 그곳에는 해마다 봄이면 파란 잔디가 새롭게 들고 가을에는 단풍 치장이 현란하다. 눈보라치는 날엔 절하고도에서 면벽 수행하는 선객처럼 의연하다.

그 속에는 영광을 물려준 이도 있고 치욕을 유전한 이도 있다. 성군 세종도 있고 폭군 연산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대등한 조상이다. 조상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의연히 접수해야 할 운명이다. 그들이 물려준 영욕을 달고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가 있다. 선택이 아닌 운명으로 대-한민국에 우리가

있다. 조상이 물려준 불굴의 DNA를 담고 이 땅에 살고 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왕들의 의효가 있을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왕릉답사를 하면서 키가 커진 느낌이다. 가슴도 넓어졌다. 고마운 일이다. 늘 운전대를 잡고 왕릉 현장까지 동행한 사진작가 최진연 선생의 노고도 고맙다. 현장에 당도하면 그는 무거운 사진 장비를 메고 뛰고 나는 게으른 악어처럼 느리게 뒤따랐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사색한 현대불교 임연태 부국장, 감지연 기자의 배려가 크다. 감사한 마음을 그윽하게 간직할 것이다. 크고 작은 오류를 지적해주고 격려해준 독자제외께도 합장례를 올린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졸	공무원	서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졸	건설사업	경기도	민건홍	1973년생	170	전문대	건축설계	경기도	오영일	1951년생	170	고졸	회사원	경기도
임영우	1966년생	174	고졸	자영업	충주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업	전주시	한상규	1973년생	171	대학교	환경	충북	강태욱	1975년생	169	고졸	회사원	서울
노해웅	1972년생	173	고졸	C회	대전	문영준	1970년생	163	고졸	영업	광주시	양명진	1955년생	170	고졸	회사원	충남	김태진	1968년생	160	고졸	회사원	충청
이주우	1964년생	168	고졸	회사원	대전	김길성	1970년생	175	전문대	공무원	전주시	이영철	1967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도	이영철	1963년생	163	고졸	회사원	경기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졸	회사원	대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졸	회사원	부산	고종욱	1970년생	167	대학교	회사원	안	심영길	1971년생	170	고졸	회사원	경기도
조복재	1965년생	180	고졸	회사원	대전	최정우	1978년생	178	고졸	회사원	진해시	안태영	1975년생	170	대학교	회사원	울	이연재	1974년생	169	고졸	회사원	경기도
임태빈	1981년생	180	고졸	회사원	대전	노금광	1972년생	162	고졸	회사원	충남	박진봉	1969년생	162	대학교	회사원	울	배덕열	1976년생	168	고졸	회사원	경기도
김기업	1969년생	180	고졸	회사원	대전	정연중	1959년생	165	고졸	회사원	충남	배중우	1971년생	170	전문대	자영업	울	배복열	1967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도
홍봉표	1967년생	180	고졸	회사원	대전	오세준	1975년생	175	고졸	회사원	경기도	김상기	1975년생	170	고졸	회사원	울	최방덕	1968년생	170	고졸	회사원	경기도
최영길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대전	박현득	1964년생	163	고졸	회사원	경기도	이종호	1976년생	163	고졸	회사원	울	장보배	1973년생	176	고졸	회사원	아산시
오상태	1965년생	165	고졸	회사원	대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학교	회사원	경기도	오진철	1974년생	170	대학교	회사원	울	유동석	1971년생	167	고졸	회사원	울
한용석	1975년생	167	고졸	회사원	대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졸	회사원	경기도	최영철	1966년생	160	전문대	회사원	울	유정환	1974년생	162	고졸	회사원	대전
최경복	1971년생	174	고졸	회사원	대전	최영준	1970년생	170	고졸	회사원	대전	정성모	1964년생	158	대학교	회사원	울	김광범	1970년생	183	전문대	회사원	경기도
이정배	1966년생	172	고졸	회사원	대전	최홍우	1962년생	164	고졸	회사원	대전	유창식	1974년생	165	대학교	회사원	울	조경성	1945년생	171	대졸자	회사원	경기도
이영근	1973년생	176	고졸	회사원	대전	김진목	1969년생	170	고졸	회사원	충북	전보우	1971년생	173	대학교	회사원	울	한균	1963년생	174	고졸	회사원	경기도
김대중	1974년생	173	고졸	회사원	대전	김재원	1966년생	175	고졸	회사원	경기도	차준학	1972년생	171	대학교	회사원	울	소무영	1961년생	175	전문대	회사원	경기도
정화섭	1960년생	175	고졸	회사원	대전	이건우	1971년생	173	고졸	회사원	경기도	이공희	1972년생	165	고졸	회사원	울	지상훈	1971년생	180	고졸	회사원	울
이동희	1972년생	180	고졸	회사원	대전	박천수	1975년생	160	고졸	회사원	경기도	이민수	1974년생	175	대학교	회사원	울	이종필	1974년생	174	고졸	회사원	울
강정석	1965년생	170	고졸	회사원	대전	모용구	1973년생	175	대학교	회사원	경기도	고석범	1974년생	162	고졸	회사원	울	최치원	1976년생	165	대학교	회사원	대전
정지영	1974년생	174	고졸	회사원	대전	박대식	1974년생	177	고졸	회사원	경기도	이진용	1955년생	170	고졸	회사원	울	김성진	1979년생	171	고졸	회사원	울
임인강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대전	최병의	1963년생	176	고졸	회사원	경기도	여인석	1971년생	183	대학교	회사원	울	최치원	1976년생	167	고졸	회사원	울
이현철	1972년생	175	고졸	회사원	대전	김진혁	1964년생	160	고졸	회사원	경기도	박종철	1974년생	170	고졸	회사원	울	김성진	1979년생	171	고졸	회사원	울
김중희	1963년생	163	고졸	회사원	대전	정지민	1970년생	162	고졸	회사원	경기도	임재환	1970년생	173	고졸	회사원	울	최치원	1976년생	165	대학교	회사원	대전
이영일	1965년생	165	고졸	회사원	대전	정일민	1967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도	최우준	1971년생	167	고졸	회사원	울	김성진	1979년생	171	고졸	회사원	울
박종구	1970년생	175	고졸	회사원	대전	정일민	1967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도	김정태	1957년생	162	고졸	회사원	울	백선기	1976년생	167	대학교	회사원	울
최원현	1970년생	170	고졸	회사원	대전	진인덕	1965년생	157	고졸	회사원	경기도	성민수	1976년생	168	고졸	회사원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졸	회사원	대전	연대현	1973년생	182	고졸	회사원	경기도	곽태성	1958년생	172	고졸	회사원	울						
육기수	1960년생	168	고졸	회사원	대전	전홍배	1979년생	170	고졸	회사원	경기도	정현제	1965년생	174	고졸	회사원	울						
배영순	1956년생	150	고졸	회사원	대전	박정민	1972년생	168	고졸	회사원	경기도	김호준	1970년생	166	고졸	회사원	울						
오성택	1970년생	165	고졸	회사원	대전	강종남	1973년생	160	고졸	회사원	경기도	이기중	1971년생	175	고졸	회사원	울						
변희섭	1965년생	174	고졸	회사원	대전	김대수	1973년생	170	고졸	회사원	경기도	최성욱	1973년생	190	고졸	회사원	울						
김대환	1973년생	172	고졸	회사원	대전	장전석	1966년생	185	고졸	회사원	경기도	조성준	1975년생	170	고졸	회사원	울						
김정호	1970년생	163	고졸	회사원	대전	안상기	1966년생	185	고졸	회사원	경기도	원병태	1971년생	165	고졸	회사원	울						
홍진석	1967년생	170	고졸	회사원	대전	김윤구	1979년생	170	고졸	회사원	경기도	정효승	1975년생	170	고졸	회사원	울						
박성현	1968년생	167	고졸	회사원	대전	정효승	1975년생	176	고졸	회사원	경기도	김정준	1965년생	168	고졸	회사원	울						
조성현	1969년생	170	고졸	회사원	대전	박대현	1977년생	168	고졸	회사원	경기도	박준서	1957년생	177	고졸	회사원	울						
배병언	1967년생	169	고졸	회사원	대전	박범진	1975년생	182	고졸	회사원	경기도												
전남진	1972년생	172	고졸	회사원	대전																		
이규안	1970년생	165	고졸	회사원	대전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	회사원	대전																		

[캠페인 PR]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원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전화 | 043)732-5560,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